

[월간] 2022年 6月 1日(수요일)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3年 第 564 號

## 2022년 제1차 안동권씨 대종회 상임위원회 개최

올해 정기총회는 집단적인 감염예방 등 고려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



2022년 안동권씨 대종회 제1차 상임위원회가 5월 11일 11시 동대문구 용두동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해옥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석(전 국회의원)·권건 중 상임부회장, 권주연(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오돈(파종회장협의회 부회장), 권정택(전 행주서원 원장), 권태복(전 금천종친회장), 권용기(대전지역종친회장), 권오중, 권광택, 권중수, 권혁창(세무사, 감사) 등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차 상임위원회는 권오상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성원보고에 이어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대종회 업무 현황 보고 회장 인사 말씀, 감사보고, 2021년도 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정기총회 개최 건 심의, 정릉동 재개발조합 가입을 위한 대리인 지정,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여 동안 규제했던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기는 했으나 매일 4~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증환자도 여전히 몇백 명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 상황은 아직도 매우 엄중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종회 건물은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상황 까지 겹쳐 현재 딱 한 사람만이 입주한 상태이고 종보에 광고한 대로 나머지 방은 다 비어 있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건물관리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걱정입니다. 그동안 고문님들 중에 권복경 전 치안본부장, 권순복 전 경남부지사,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 권오수 전 부총재, 권오선 전 고문, 권중동 전 노동부장관, 권찬혁 전 고문, 권태강 전 검교공파종회장 등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임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더 힘차게 노력하여 대종회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혁창 감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년 회계연도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보고를 했다. 상임위원회는 2021회계년도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22년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권오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022년도 대종회 장학생으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4학년 권구왕 학생 등 15명이 선발되었음을 보고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장학생도 선발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올해는 지역종친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로 1명씩을 선발하여 15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권오록 고문이 대종회에 기탁한 현성금 중에서 선발된 장학생 각 개인별로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최종 심의 의결했다.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들 간에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했으나 거리 두기 등 방역대책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감염과 위증증 환자 발생 등 노령층 기저질환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집단적인 감염 예방 차원 등 엄중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총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특히 권주연 상임위원회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권해옥 회장은 정관개정 문제는총회를 거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시 내년 정기총회 이전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1시에 시작한 상임위원회는 오후 1시에서야 끝이 났다. 편집국장 권행완

## 좌윤공파 파조 단소 고유제 성황리 거행



좌윤공파(회장 권오신) 파조 단소(壇所) 고유제(告由祭) 및 비(碑) 제막식이 5월 28일(토) 10시 안동시 북면 자발길 39-27 연원재사(燕院齋舍) 일원에서 권오신 좌윤공파회장을 비롯하여 권해옥 대종회 회장, 김창희 전 성균관 부관장, 권명호 국회의원(울산동구, 좌윤공파),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시예천군), 권정창 대종회 제례위원장, 권주연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오돈 주밀공파회장, 권세목 복야공파회장, 권인탑 전 정조공파회장, 권영택 정조공파회장,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회장, 권한현편집위원장, 권오의 안동 사무소 사무국장, 권혁무 전 운곡서원 운영위원장, 권수웅 부회장, 권영복 이사 등 참석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제막식이 끝나자 일행은 합제단으로 이동하여 권정(계림국악예술원 이사장) 사회자의 진행과 권오근 짐례의 훌기에 따라 초헌관 권오신(좌윤공파 회장), 이현관 권오준(주밀공파 회장), 종현관 권오준(부정공파 회장), 죽관 권갑현(안동권씨종보 편집위원장) 등의 현관과 함께객이 운집한 가운데 고유제(告由祭)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그동안 좌윤공파는 파조의 묘가 실전되어 700여 년 동안 파조 향사를 지내지 못한 실정이었다. 2019년 10월 주향제에 참석한 권오신 회장 등 후손들은 제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좌윤공파를 여신 파조를 비롯하여 아들 주밀공, 손자 정랑공, 증손 문과공 선조의 형태를 모시지 못한 7백여 년의 한을 풀기로 결의하여 단소를 조성하는 등 '연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파조단소는 둑근 모양으로 조성하였고 봉분돌레석으로 십이지 조각상을 배치하여 장엄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몄다. 파조 비(碑)에는 정종

섭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찬한 1,700자의 글을 한 흐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숭조정신으로 직접 손으로 각자하여 선조에 대한 추원보본의 뜻을 아로새겨 넣었다.

'연원 성역화 사업'은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 말에 완공되었다. 영주석재에서는 비와 봉분을 건립하였고, 6백여 평에 달하는 단소 조성은 태광건설이 맡아 시행하는데 공사비는 총 4억 원을 상회하였다.

권오신 회장은 인사말에서 좌윤공파는 지난 700여 년 동안 파조에 대한 제례를 지내지 못한 것이 모든 종원들의 한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유제를 지내니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월카 쏟아질 뻔했다고 말하며 날씨가 몹시 더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외구빈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좌윤공파는 4만여 명의 종원들이 권오신 회장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지난 2021년 7월 26일 문정공(文靖公, 16세)과 정경부인 언양김씨 묘소를 600여 년 만에 고려의 문하시중을 지낸 부친의 묘소 바로 밑으로 이장하였고, 이번에는 연원재사를 중건함으로써 역사적인 '연원 성역화 사업'을 완성하는 위업을 달성함과 동시에 연원재사 일원을 성지(聖地)로 탄생시켰다. 권오신 회장은 사업 추진 중에 심장을 수술하는 어려움에도 종사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감으로 종사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였다. 권오신 회장의 부인 안정숙 여사는 합제단에 진설할 제수를 지극정성으로 마련하여 이날 새벽에 포항에서 안동까지 봉송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부장부수(夫唱婦隨)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편집국장 권행완

## 5月 임원 추대 및 회비 납부 내역

### <인사 발령>

2022.6.1자  
사무총장 권오상(총무국장 겸임)

### 부회장

권정일(대구)  
권오수(경기고양)

<임원 추대>  
'22.05.19자  
권재국 고문(영가실업 회장, 한국서예미술예총 특별작가협회 고문)

### 이사

권순구(원주)	300,000
권오정(예천)	300,000
권태은(구미)	300,000
권혁구(음성)	300,000
권철철(음성)	300,000
권영식(인천)	300,000

총 : 4,6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문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